

# 꼬꼬닭 모자가 어때서?

**타인에 대한 반응을 일깨우는 유쾌한 그림동화!**

"세상에..... 정말 끔찍하군요! 어떻게 머리에 닭을 쓸 수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모자를 쓸 권리는 있지 않아요? 바다가재는 쓰지 않을 거예요.  
 족제비도 싫고요. 하지만 닭은 정말 쓰고 싶어요. 바로 제 머리 위에 말예요!"  
**후담탕탕-.. 왁자지껄-.. 웅성웅성-**  
 큰일 났어요! 여왕이 들르기로 한 리틀런 마을에 대소동이 일어났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허니컷 부인의 꼬꼬닭 모자가 문제래요.  
 여왕은 허니컷 부인의 꼬꼬닭 모자를 보고 뭐라 할까요?

(켈트 할머니의 선물)의 지은이가 통찰력과 유머로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섬세한 소재와 그림으로 재미있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프 브럼보 글·게일 드 마렌 그림/양혜원 옮김/양정/전면 컬러/11,000원

**★부록★**  
**공작용 '꼬꼬닭 모자'와 '칠면조 모자'를 드립니다!**

홍성사

# 홍성사에게 펴내는 믿음의 어린이책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사관이었다 -빌 게이츠  
 이제 아이들에게, TV는 끄고 '믿음의 책'을 켜 주세요!

**5세 이상**

**켈트 할머니의 선물**  
 "이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유쾌한 우체이다." 기독교 기성교회  
 "깊은 조각을 연상시키듯, 여러 컷으로 잘게 쪼개진 화려하고도 인상스러운 그림들이 상상력을 한껏 부풀린다." 황수영 기자/이현애 옮김 제프 브럼보 글 게일 드 마렌 그림/양혜원 옮김/양정/전면 컬러/12,000원

**토비아스의 우물**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에 담겨진, 한나비의 무모한적인 사랑과 용감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앤스 루케이도 글·대금러스 클로버 그림/양혜원 옮김/양정/전면 컬러/6,000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성경적 참작 동화.  
 \*BCA 골드메달리스트 상 수상, 제1회 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상 수상  
 앤스 루케이도 글·대금러스 클로버 그림/양혜원 옮김/양정/전면 컬러/6,000원

**나나는 하나님이 궁금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가는 하나님 이야기. 아이들에게 철학적 사고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길러 준다. 안젤리카 슈미터 글 베키나 쾰텐베르크 그림/송순상 옮김/올림/전면 컬러/6,000원

**초등 저학년 이상**

**성경전과-산, 구약전(2권)**  
 10년간 수집한 600여 점의 사진과 그림자료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비주류 성경.  
 벨로트 헤이스팅스 글·아리 보라스 그림  
 최현준 옮김/올림/양정/전면 컬러/152 184면  
 각권 19,000 24,000원

**어린 나쁜 녀석들**  
 기독교출판문화상 유망작상, 15년 대륙 일러스트상  
 100쇄 출간 기념작. 우리나라의 일곱 통창작가와 삽화가의 손길을 거쳐 나온,  
 믿음의 어린이를 위한 순수 우리 고전.  
 조상지 글·신기영 그림/이창순 원작  
 AS산본형/152면/6,500원

**민화 성서대전-산, 구약전(4권)**  
 솔라이드처럼 펼쳐지는 민화를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임 피케트 글·리버 워드 그림  
 최현준·선부경 옮김/올림/각권 4,800원

홍성사

# 2004 새해 설계를 돕는 책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의 묵상과 기도  
 -저명한 성경신학자 존 톰바의 성경 속 길 찾기

**복음서로 드리는 매일 기도**  
 마태와 요한의 복음서 본문에 대한 묵상과 기도문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자연스럽고 편안한 리더의 기도로 이끌어 준다.  
 유진 피터슨 지음/이종태 옮김/민음의 글들 182/384면/8,800원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 기도**  
 인생사의 모든 경험과 내면을 담고 있는 다윗 시편에 대한 묵상과 기도문이며, 우리를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준다.  
 유진 피터슨 지음/이철민 옮김/민음의 글들 175/384면/8,800원

**성경, 흐름을 잡아라**  
 성경신학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일관된 흐름으로 연결해 주는 유익적 성경연구 핸드북. 미국 개혁교단 공시 장년주일학교 교재.  
 존 톰바 지음/박재영·이석원 옮김/민음의 글들 181/424면/12,000원

**매일 기도 수업**  
 날마다 기도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의 광명' 외에도  
 묵상과 기도를 위한 기도 한 주 통보기도, 기도생활 행기문형과  
 제로 리스트 등을 제공하며 있는 매우 유용한 '기도 일기장'.  
 본집부 역음/80면/전6권(각권 2개책제)/각권 1,000원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 책의 선물

Book News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들어 내는 책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령충만하시길 빌며, 홍성사 일직원 올림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 한국 교회 청년사역 매뉴얼, 여기까지 왔다!

고석환, Young2080 집필팀 지음/B5변형/280면/13,000원

청년사역은 나에게 언제나 진행형이다. 대학 부사역을 통해서 목회의 첫발을 내딛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순수(純)한 헌신과 순정(純正)의 열정은 내 사역의 원형질을 형성하고, 오늘날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도 청년을 앞에 서면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뛰는 것은 그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무한대의 열정과 비전, 순도 100퍼센트의 흥분과 긴장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일한 열정과 비전, 흥분과 긴장을 느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편애일까? 일반적으로 매뉴얼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기 쉽지만, 이 책은 매뉴얼의 실천력 위에 영감(靈感)이 더해져 있어 기존의 것들과 다르다. 페이지마다 저자의 청년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살아있고, 눈물과 땀의 이면에 녹아든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매뉴얼의 기본기가 탄탄한 책이며 현장감이 살아 있는 책이다. 그것은 아마도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려 뛰면서 불순물을 거르고 걸러서 올려진 결정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사역의 시행착오를 덜어 줄 수 있는 책이다. 숙독(熟讀)하고 체득화한다면 급속 같은 몇 년의 세월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그 절박한 시간을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본다면 엄청난 시간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소중한 책으로 생각된다.

청년사역은 구체적인 준비에 비해서 열정이 앞설 경우가 많다. 초기의 흥분이 사라지면 사역이 본래대로 이룩(離陸)하기도 전에 쇠퇴해지고, 그 결과 다시는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주저앉기도 한다. 또 새롭게 청년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책을 찾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청년사역을 하는 이들은 사역자들을 찾아 도움을 얻기를 바라지만 자신들의 상황과 책이 다를 때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미 청년사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동력(動力)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년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여 주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내내 가슴을 가득 채운 것은 우리나라 청년사역의 매뉴얼도 이 정도만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이 책의 출간은 저자의 탁월한 노력인, 20-30년 전만 해도 불모지였던 청년사역의 현장에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 사역자들의 눈물과 땀의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귀한 열매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 다시 한 번 청년사역이 부흥하기를 꿈꾸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책이 지침서로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글 ● 오정현(사명교회 담임목사)

# “청년사역의 설계도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저자 ● 고석환 Young2080 대표

청년사역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978년도부터 IVF 전임 사역을 시작으로 청년사역을 했으니깐 25년 정도 됐네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청년이 살아야 교회와 산다, 나라가 산다고들 말하지만, 대부분 청년사역은 돈이 많이 드는 데 비해 돈이 안 되는 일이라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자본의 논리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청년사역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다들 회피합니다. 자본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가장 실망스럽고 힘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산과 많이 다를 텐데, Young2080 사역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요?

-젊은이 개개인도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계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파편화,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서 공동체적, 즉 관계에 약합니다. 한국에 1만여 개의 청년대학부 평균 인원이 10~20명인데, Young2080은 그 수를 20~8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이 '뷰티맨'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도 혼자서는 어렵지만, 공동체에서 지체와 더불어 권면 또는 격려를 받아 가면 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많은 것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공동체를 지렛대 삼아 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Young2080은 청년대학부 또는 캠퍼스나 직장에서의 공동체 세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청년사역의 실제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이 가진 강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 책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례보 고서가 아닌 청년대학부공동체 세우기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각본을 비교적 구체적인 설계도로 다루고 있는 일종의 청년대학부 설계도 또는 로드맵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을 단순히 선행하거나 동기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들을 실제적으로 알려 줍니다.

글 ● 이경희(변집부)

# 청년사역, 매당에 헤당하지 말자!

★ 오정현·진병욱·리준석 목사 추천

청년대학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천 매뉴얼!

국내 최초로 설립된 청년사역 전문연구기관 Young2080(젊은이선교정보연구센터) 대표 고석환 선교사와 전문 집필팀이 내놓은 젊은이들의 실천매뉴얼.

"사역의 시행착오를 덜어 줄 수 있는 책, 숙독(熟讀)하고 체득화한다면 급속같은 몇 년의 세월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그 절박한 시간을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본다면 엄청난 시간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소중한 책으로 생각된다." - 오정현/사명교회의 담임목사

"지도(roadmap)와 같은 책이다. 초행길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 책은 청년사역의 길을 걷는 사역자들에게 정확한 지도가 제공하는 안도감을 주는 책이다." -진병욱/삼일교회 담임목사

"이 책은 순수한 열정과 현장 경험, 그리고 깊은 생각을 지닌 이들이 쓴 글이다. 글에는 파워가 있고, 감동이 있다. 또한 현장감이 있으며 구체적이다." -리준석/새 은누리교회 청년담당 목사, 진주대 교목

고석환: Young2080 대표, 15년째 청년사역에만 전념해 온 청년사역 전문기관, IVF와 학원복음화협의회 총무, 사명교회와 경기도대학부 디렉터를 역임했다. Young2080 센터는 1993년 청년대학부 활성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사명교회와 학원협의회 함께 설립한 연구소이다.

고석환 · Young2080 집필팀 지음/B5변형/280면/13,000원

홍성사가 펴낸 청년사역 길잡이

크리스천 새대기를 위한 대학생활 길잡이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가이드와 알찬 정보  
 학원복음화협의회 역음/A5산본형/176면/3,500원

13인의 현장 전문가가 바로는 청년 사역자 핸드북  
 학원복음화협의회 역음/A5산본형/296면/7,800원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장애인 부부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는 간절히 아이 낳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두 번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렵게 들어선 세 번째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 아이가 살아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놀란 가슴을 솥아내려던 그들에게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들의 뱃속 아이에게서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의 뇌가 팔 쪽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장애였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호흡장애를 일으킬 것이기에 아마도 15분을 살기가 힘들 거라고 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순간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가?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애써서 사랑하며 아무 말도 안했던 생명인대, 내 손으로 죽어야 하나!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의사에게 아이를 뱃속에서 계속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그 말을 냉정하게 잘랐다.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 받아야 할 상처는 지금 아이를 유산시킬 때 받게 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에 의사인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의사는 비록 화를 내었지만 결국 그들은 아이



정진호 지음 / A5신변형 / 224면 / 8,000원

를 키우기로 결단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속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Lucas)라고 지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몇 달의 시간을 루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들은 매일 루카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루카스를 위해 기도했다. 루카스를 볼 수는 없었으나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기에 매일 그 아이와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다. 루카스의 살아 있음이 느껴질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했다. 루카스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이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일궈낸 생명의 신비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감격 가운데 아이를 받았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나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빠져나온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의사의 충고에 따라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 주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였다. 루카스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린 뒷덜미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아 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주어진 15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80분이 지나고 한 시간이 지

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기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 있었다.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루카스를 집으로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에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주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 나날이었다. 루카스를 위해 서둘러 세례를 받게 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조심스레 닦아 주고, 매일 선물을 안겨 주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러 놀라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의 말을 던졌고,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간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루카스는 17일을 살아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루카스를 떠나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예배당에서는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루카스의 장례 예배가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단 위에 놓인 작다작은 관 안에 루카스의 어여쁜 사진이 들어 있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슬퍼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앞으로 걸어 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토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 생략)에서 발췌·인용



#### 박념록의 사랑

김서택 목사의 소신지서 강해 시리즈에 속한 새로운 <요나서> 강해집.

‘물고기 뱃속의 요나’ 보다는 ‘니느웨 성 박멸’이라든가 ‘요나’에 초점을 맞추어, 요나의 장래에 담긴 이중성을 하나님께 사랑과 구명하게 대비시켜 보여 주고 있다.

김서택 지음 / 176면 / 6,500원

####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위한 체계적 예배 특강이자 교육서.

“지금의 예배순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성경적이면서도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주희재/서울방안교회 담임목사  
송인규 지음 / 240면 / 7,800원

## 아듀 2003년, 올해의 책들

####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이 시대 청년을 위한 선물용 양장본.

장기 바스트렐라 <청년아, 울더라도 부러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두 권을 고급양장본 한 권에 합본한 선물용 도서.

이재철 지음 / 544면 / 13,000원

#### 예기치 못한 기쁨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의 자전적 회심기.

“새하기를 시작하는 지성인 후배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신앙에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안광국/온누리교회 부목사.

C. S. 루이스 지음 / 강우나 옮김 / 360면 / 양장 / 13,000원

#### 레프트 비하인드

타임·워싱턴포스트가 극찬한 기독교 소설.

타임지가 “기독교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한 스티븐 소설 <Left Behind> 시리즈의 청사진판.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삼아 세기말의 상황을 스펀크스럽게 그려냈다.

팀 레아에·제리 켄리스 지음 / 홍종락 옮김 / 504면 / 11,000원

#### 내게 있는 것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의 청년들에게 띄우는 세 번째 청년서신.

“세상에 있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황제의 놀이 앞에서 담대히 영원한 논리를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되려고 하는가? 이 책을 통해 분명한 대답을 얻을 것이다.” —김병환/높은뜻순교교회 청년양육부

전도사 이재철 지음 / 280면 / 본문 2책 / 8,500원

#### Audio-내게 있는 것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에 도전하는 깨움의 메시지.

거대주의·성공제주의·황금만능주의 대변인인 황제의 놀이가 지배하는 ‘물신(物神)의 시대’에, 주님의 놀이-영원의 논리를 감파한다.

이재철 지음 / 양장 케이스 / Tape 4개 / 9,500원

#### 천국과 지옥의 이혼

국내 최초로 번역·소개되는 루이스의 신학적 판타지 소설.

“아주 재미있고, 루이스의 깊이 있는 사상을 접할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 생각한다.” —김도일/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

C. S. 루이스 지음 / 김성현 옮김 / 192면 / 양장 / 8,800원

#### 김미라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대한민국에국무헌회를 조직한 김미라리아의 생애와 사상.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인물인 김미라리아의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교육사업 등 일생의 궤적을 추적하여 쓴 최초의 김미라리아 연구서.

박용욱 지음 / 512면 / 양장 / 20,000원

####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 루카스가 던져준 치유의 비전.

지극히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 루카스를 모티브 삼아, 생명·이웃·부부·아들·사랑·진리·양심·겨레 등 12가지 테마로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풀어낸 감동적인 에세이다.

정진호 지음 / 224면 / 8,000원

#### 2003 흥성사 ‘올해의 뉴스’

타인에 대한 관용을 일깨우는 유쾌한 이야기

허니컷 부인이 파리에서 도착한 새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자 위에는 달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에 달을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

유난히 깔짝 떠는 리틀턴 사람들은 여왕의 방문을 준비하느라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어요. 고리타분한 이 마을 사람들은 허니컷 부인이 기상천외하게 생긴 새 모자를 쓰고 나타나자 충격과 불쾌함에 사로잡혔답니다. 사람들은 고고한 모자를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지요.

하지만 허니컷 부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쓰고 다닐 권리를 주장하며 파문 사람들파 맞섰습니다. 여왕이 도착하자 사립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리틀턴 사람들은 비로소 삶을 재미있게 만드는 우스꽝스럽고 발랄한 행동을 즐긴 줄 알게 됩니다!

<리틀 할미나의 선물>의 지은이가 통찰력과 유머로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현실적 주제와 리얼리티 있는 스토리 전개로 통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유쾌하게 일깨우는 그림동화입니다.

저프 보럴로프 글·레이프 다 마렌 그림 / 양해원 옮김 / 양장 / 32면 컬러 / 11,000원

1. **홍성사 일사상운호의 사내가족을 진땀**

자녀 9명, 27일 편집부 정성수 대라33와 이연주 대라33가 가장을 이루었는데, 이는 홍성사 설립 이래 최초의 사내 가족이면서 부사 내 카를로 기 버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2. **이남진 이사, 근무 20년!**

홍성사의 선 중이었던 수 있는 이남진 이사 기 올레트 홍성사 근무 20년을 맞았다. 강산 이 두 번 변한 세월을 한결같은 사랑의 소고와 성인으로 달려온 그의 '오랜 근무'에 존경과 사랑의 박수를 보낸다.

3. **편집부 이남진 이사, '올해의 편집부' 상 수상!**

한국기독교출판편집인회가 주관하는 제1회 '올해의 편집부' 상에, 편집부 마태오 박영철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판사에서 '이' 상은 모든 동료와 함께 받아야 할 상'이라고 평을 돌려 박수를 받았다.

4. **이남진 목사, 대한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생애》로 인해, 대한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출판부)을 받았다. 이 책은 남자의 삶, 그 갈수록 이어가게 개성으로, 본문을 2개로 하여 각종 자료를 시각적으로 편집하는 등 편집에 공을 들였다.

5. **홍성사의 '보물창고' 서고 건축 시작**

일명 '보물창고'로 불리는 서고 건축이 들어간 현재 상 황시까지 마지막 중공에 박자를 가지고 있다. 지고한 공간이지만, 홍성사를 위해 사방에 주시는 모든 독자들의 '보물창고'가 되도록 기도하며 지어 가고 있다.

6. **출간 20주년, 30주년, 40주년 기념 책들**

올해에는 출간 후 오랜 세월 동안 변함 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 두 권이 출간 20주년을 맞았다. 스무 살 청년의 나이가 된 책의 주인공은 <창조와 영광>에서 오다 두 권이다. 창조경에서도 두 권 다 소설로서는 기독교출판사에서 드문 기록을 갖게 되었다.

2003년 12월 17일

차유의꿈, 루카스 이야기

17일간 세상을 살다간 루카스, 그가 던져준 차유의 비전!

“이 책을 상처 입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바칩니다.”

두 번의 유산 끝에 임신한 셋째아이, 그러나 지병적 장애로 인해 의사의 인공유산 권고를 받은 생명. 장애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 찬양을 들으며 태어나 단 17일간의 이 땅에 살다간 루카스. 이 책은 루카스 이야기로 시작하여, 생명·이웃·부부·아들·사랑·진리·양심·겨레 등 12가지 테마로 차유와 회복의 비전을 풀어낸 감동적인 에세이다.

정진호 지음 / A5신변형 / 224면 / 8,000원

정진호

코스타(KOSTA·해위문학상수상) 강사로 8년째 헌신하고 있는 저자 정진호 교수는 평양 과기대 설립을 꿈꾸며 북을·통일·국가를 향한 세 가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연변과기대에서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루카스 이야기

정진호 지음 / A5신변형 / 224면 / 8,000원

인간의 일생

하나님 말씀을 자기야망의 도구로 삼는 시대에 고함

2003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 주제 메시지. 자기야망에 따르는 '야단'의 삶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쁜'의 삶을 살도록 간직하면서도 뜨겁게 호소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경회 기간동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경회 마지막날의 결단과 파충의 시간이었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프로 목회자가 됩시다. 프로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시며 설교를 마무리하는 순간, 목이 잠기시어 울먹이면서 많았어 학우들을 잠깐 응시하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눈물은 단 아래에서 말씀을 들은 신학도들에게 많은 울음과 더불어 크나큰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도형 전도사/온라인(뉴스앤조이) 2003.9.8

01 역사의 지평 4:13-22 02 홀로, 더불어 살아가는 16:4-13 03 베르사 뭇사 실마 6:1-8 04 예언과 야단 실마 11:1-5 05 회개와 등장 왕상 1:1-4

이재철 지음 / 양장 케이스 / Tape 5개 / 각 90분 / 13,000원

이재철 목사의 Audio-Messagebook

비전의 사랑 2001 장신대 신대원 신앙사경회 주제 메시지! 양장 케이스 | Tape 5개

참으로 신실하게 제네바 한민교회를 섬기는 3년간 길어올린 영성의 메시지. 양장 케이스 | Tape 4개

내게 있는 것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에 도전하는 깨움의 설교! 양장 케이스 | Tape 4개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 청년·대학생들의 지성과 영성을 높이는 책

“그동안 나는 어디서나 안식을 찾아보았지만, 책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 토마스 아 켄피스

### 순전한 기독교

타입지가 극찬한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19세기 서구인들이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기독교에서 유물론으로 건너갔다면, 20세기 서구인들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물론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 - 동아일보 ※ 2001 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최우수상(일반신앙부문) 수상도서  
장경철·이종태 옮김/민음의 글들 185/A5신변형/양장/352면/12,500원

### 대천덕 자서전-개척자의 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자서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라고 권면하는 그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실려 있는 사진이 생생한 감동을 더한다.  
※1999 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평신도 부문) 수상도서  
대천덕 지음/양혜원 옮김/민음의 글들 167/A5신변형/양장/268면/8,800원

### 새벽을 깨우려하다

많은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찾이온 간증의 백미. 70년대 창계천에서 도시 빈민들과 한 몸이 되어 살았던 청년 김진홍(현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뜨거운 이야기가 복음과 삶의 역동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김진홍 지음/민음의 글들 6/A5신/208면/6,500원

### 회복의 신앙

“중생”을 체험하기까지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자가, 참 신앙의 본질을 여섯 가지 완결성을 갖춘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깊은 주제와 생생한 예화  
가 감동적인 책.  
이재철 지음/민음의 글들 171/A5신/272면/7,000원

### 나의 세계관 뒤집기

한국 라브리 총무 성인경 목사가 영국 라브리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균형잡힌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성인경 지음/민음의 글들 161/A5신/276면/7,500원

### 참으로 신실하게

기독교 역사(歴史)는 유구히되 말씀의 역사(後事)는 죽어 버린 유럽 교회를 목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숙고한 저자가 이 땅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영성의 아포리즘! “기독교의 핵심—말씀, 믿음, 구원, 삶 이 네 가지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규명하고 있는 책!” - YES 24 편집자 추천  
이재철 지음/민음의 글들 191/A5신변형/240면/7,500원

###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직업, 비전, 선택, 고난, 용기, 물질, 문화, 은혜 등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가꾸어야 할 20가지 영적 주제에 관한 ‘통쾌한’ 가르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스무 가지 영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 국민일보  
이재철 지음/민음의 글들 177/A5신변형/248면/7,000원

###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젊은 세대와 초신자를 위한 세계관 입문서—  
프랜시스 셰퍼 박사의 딸 수잔 셰퍼 맥클리의 특목 튀는 세계관 이야기. “수잔 맥클리는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하는 데 성공했다.” - Campus Life Mazine  
수잔 셰퍼 맥클리 지음/김종철·박찬숙 옮김/A5신변형/224면/7,000원

### 요셉의 회상

꿈쟁이 요셉이 회고록 형식으로 전하는 인생과 신앙 이야기. 자기 처지와 환경, 가족관계 등에 낙심한 이들에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회고’는 진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자유철 지음/A5신변형/240면/6,800원

### 크리스천 새배기를 위한 대학생활 길잡이

대학생활에 대한 캠퍼스 현장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의 유익한 조언과 알짜 정보를 모은 대학생 가이드. “선배들은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 책을 사 줄 필요가 있다.” - 고석환 / 젊은이선교정보연구센터 대표  
학원복음화협의회/A5신변형/176면/3,500원

# 신앙 훈련 교재로 널리

## 검증받은 책

### 1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1, 2

오랜 성찰과 연구를 통해 집필한 대중적 신학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뿌리박힌 왜곡된 신앙과 신학에 대한 탁월한 해독제! “이 책을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은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강영만 / 서경대 교수 · 가운실 공동대표  
송인규 지음/민음의 글들 183 / 184/A5신변형/각권 296면/각권 8,500원

### 2 송인규 교수의 신앙 카페 1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성경적 · 신학적으로 핵심을 콕콕 짚어 주는, 송인규 교수의 예배 특강! 주보에 나오는 현재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으로 정해졌는지와 더불어 예배 요소를 조목조목 짚어 가며 알려 준다. ※ 각장마다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 목회자 · 직분자 · 청년 모두를 위한 알찬 예배 교육서!  
송인규 지음/민음의 글들 197/A5신변형/240면/7,800원

### 3 성경, 흐름을 잡아라

성경 66권을 하나의 맥락으로 조망해 주는 ‘유기적 성경 연구서’. 성경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을 위한 개인 성경연구서와 평신도 리더 교재로 적합. ※ 미국 개혁 교단 장년부 교재,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교재  
존 팀어 지음/박해영 · 이석열 옮김/A5신변형/424면/12,000원

### 4 열을 동안 배우는 주기도론 학교

수도원적 영성이 임영수 목사가 쓴 주기도론 교육서. 주기도론 강해를 토대로, 열을에 걸쳐 하루 한 장씩 주기도론 각 구절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 새신자 · 구역 · 소그룹 교육 교재로 적합, 각종 복습 ·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임영수 지음/A5신/128면/4,800원

### 5 2주 동안 배우는 사도신경 학교

수도원적 영성이 임영수 목사가 쓴 사도신경 교육서. 저자의 통전적 역사관과 통찰력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강해를 바탕으로, 2주간에 걸쳐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게 엮었다. ※ 새신자 · 구역 · 소그룹 교육 교재로 적합, 각종 복습 ·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임영수 지음/A5신/224면/6,500원

### 6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열린예배의 모든 것. 불신자를 위해 수년간 열어 온 열린예배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관해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책. ※ 예배 인도자 · 봉사자 필독서  
에드 답슨 지음/박해영 · 김호영 옮김/276면/7,000원

### 7 새신자반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신자 양육 기본교재. 이재철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양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 쓴 쉽고도 명쾌한 스테디셀러 신앙교육서. ※ 새신자 · 구역 · 직분자 훈련 교재로 적합  
이재철 지음/A5신/400면/9,000원

### 8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큐티선교회 설립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큐티로 새롭게 변화된 20년 삶과 큐티 이야기. 고된 시집살이, 가솔, 남편과의 사별 등 온갖 역경을 통해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온 저자의 간증과 자신만의 큐티 노하우가 감동적이다. ※ 여전도회 큐티 교재 · 신물용으로 적합, 출정집 · 감동로 목사 강력 추천!  
김양재 지음/A5신/248면/본문2도/7,800원

“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서 낮이고 밤이고 책을 읽었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 지미 카터/미국 제39대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